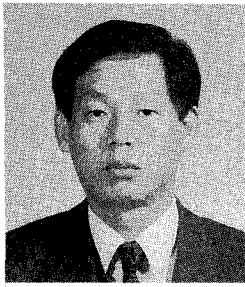


임오년 육계(계열)사업 결산

이미 불황을 맞이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전 영 배

(주)한일농원 계열화사업부 이사

2002년 강원도 지방을 강타한 루사의 피해가 상당히 충격을 주고 고통과 아픔을 전 국민에게 남겼으며, 전 국민의 성금이 답지하고 겨울 넘길 준비를 하는 T.V 프로를 보면서 우리 업계의 현실성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 업계의 현실은 태풍 '루사' 보다 더 강력한 "생산성 과잉"에 처해있는 현실을 직감하면서 필자의 20년간의 업계종사에 대한 무력감과 현실 직시의 둔항을 개탄하며 너무도 심하고 무방비한 업계 현실을 정말 뭐라 표현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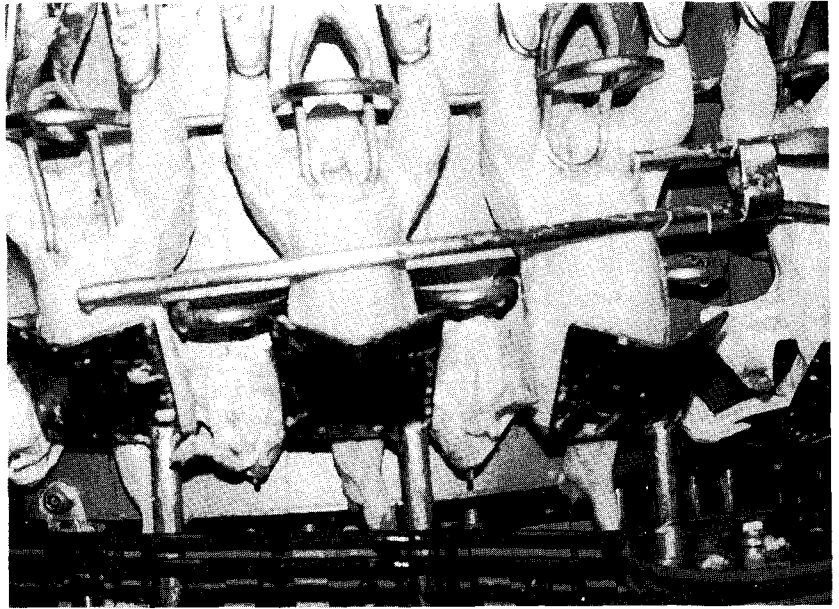
루사의 피해는 국민 성금으로 해결되지만 우리 업계의 불황의 굴레는 누가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업계의 총체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한다.

1. G.P.S 수급 문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자. H사의 G.P사업이 S사로 통합되면서 G.P는 그 동안의 무분별한 생산 증가에서 어느정도의 뚝의 제방 역할을 담당하며, 생산 조절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물론, 종계공급의 문제나 질병문제, 폭설피해 등 업계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큰 어려움 없이 호황을 누려왔다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 최근까지의 종계분양을 살펴 보면 누구라도 생산 과잉을 예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폭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 안으로 종계도태를 실시하였지만 P.S수급 조절에 대한 노계도태는 일시 문제 해결에는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불황의 시기만 더 길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필자가 제한하고 싶은 것은 이미 분양된 계군 중에 5주령부터 25주령에 도달 된 계군중에 5% 줄여서라도 이미 진행된 상



황에 대처해 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본다. 2002년 7~10월에 분양된 종계의 수수를 보면 내년의 북병아리의 생산 잠재력은 질병의 요행수나 자연재해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어려워 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제방을 임시 방편이라도 조정을 하여 하류 천에 있는 우리 양계인(육계농가)을 보호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본다.

2. 부화장 및 종계장의 문제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물론 경기가 좋고 P.S 수수가 많아 입추가 용의하지 않은 비 현상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양계업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불황이 곧 닥친다는 예견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안일한 생각과 방심에 있으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불황의 예고를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부화장과 종계장은 델래야 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여 종계 입추문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서로의 협력과 양보로 문제가 커지기 전에 현명한 처신으로 불황을 대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3. 육계 농가의 문제

1) 일반 사육농가

수도권 중심으로 볼때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 20~30%가 닭 가격의 변동에 따라 사육하고 있어 병아리 및 육계가격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일반사육과 계약사육을 상황에 따라 실시하는가 하면 입추열기가 붙으면 웃돈을 주고라도 입추를 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유통과정의 어려움과 육계가격의 흐름도 일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한다.

2) 계약 사육농가

최근은 계열사 주체의 변화로 사육농가의 이동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안정적으로 농가 확보를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 사육농가나 계약사육농가 등 모든 육계인들은 이제 지나온 세월처럼 고가의 시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지난해 봄 폭설 피해로 인한 계사 증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폭설 피해 전보다 현장에서 느끼는 농가 증가량은 20~30%가 증가 된 것으로 보아 농가의 수급은 북병아리 입추시만 빼고는 입추 농가의 수급은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사육 성적을 바탕으로 어느 계열 주체와 연관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하느냐가 그 농가의 수익과 직결되지 않는가 생각된다.

4. 결 론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봄부터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보면 평균 30%이상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여름에 태풍이 몰려오는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대책 없이 바라보다 '루사'와 같은 비극을 맞는 것과 같다. 이 대책안으로 물난리가 나면 댐으로 급 물살을 피하듯이 이 많은 P.S를 어떻게 수급

표1. 종계입식(분양)수수

단위:천수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전년대비	126.1%	98.3%	122.4%	132.4%	105.7%	121.8%	216.5%	119.6%	99.7%	69.4%			123.3%
2002년	225	332	499	446	396	380	580	520	474	353			3,852
2001년	179	338	408	337	375	321	268	435	475	508	379	265	4,277
2000년	224	376	394	340	285	267	277	362	393	381	204	141	3,645
1999년	212	329	379	381	308	317	279	351	388	290	171	120	3,526
1998년	220	188	273	309	256	250	285	342	317	296	236	242	3,214
1997년	327	426	395	325	337	252	315	464	403	297	275	232	4,048
1996년	240	445	494	374	324	343	393	493	285	367	230	194	4,182
1995년	184	182	402	363	369	323	328	453	506	380	283	241	4,014
1994년	231	293	372	312	275	356	369	424	373	503	362	249	4,119
1993년	279	385	392	319	233	271	430	476	457	236	129	143	3,750

(자료:대한양계협회)

표2. 병아리 생산 잠재력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전년대비	125.7%	129.6%	133.6%	130.4%	120.8%								129.9%
2003년	4,089	4,124	4,422	4,638	4,713								17,363
2002년	3,254	3,252	3,309	3,557	3,901	4,135	4,108	3,894	3,755	3,776	3,928	4,091	44,960
2001년	3,082	3,043	3,099	3,261	3,463	3,475	3,245	2,954	2,843	2,935	3,073	3,193	37,666
2000년	3,256	3,262	3,292	3,400	3,463	3,379	3,099	2,829	2,761	2,890	3,018	3,092	37,741
1999년	2,714	2,670	2,742	2,901	2,996	2,991	2,978	2,889	2,853	2,947	3,119	3,223	35,023
1998년	3,412	3,402	3,455	3,639	3,743	3,594	3,339	3,147	2,990	2,832	2,806	2,801	39,159
1997년	3,816	3,775	3,907	3,977	3,977	3,881	3,626	3,380	3,377	3,480	3,541	3,568	44,304
1996년	3,374	3,293	3,438	3,669	3,878	3,948	3,787	3,674	3,618	3,733	3,868	3,889	44,168
1995년	2,914	3,003	3,255	3,453	3,775	3,953	3,956	3,722	3,451	3,350	3,358	3,386	41,575
1994년	3,189	3,214	3,419	3,719	3,819	3,588	3,242	2,969	2,842	2,888	2,956	2,915	38,761
1993년	3,747	3,712	3,683	3,756	3,787	3,697	3,444	3,255	3,174	3,219	3,307	3,282	42,061

(자료:대한양계협회)

조절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며,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재 분양된 P.S 계군 중에 5~25주령 된 계군에 일정비율(%)의 도태자금을 지급하여 사육수수를 조절함으로써 댐에서 방류되는 물을 어느 정도 조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하늘만 쳐다보는 어려운 국면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그리고 이 기회에 육계농가 현황 파악도 필요한데 현 계열주체의 사육팀을 이용하여 유통사무실의 주소록을 발취한 후 중복된 부분만 정리한다면 육계 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태풍이 몰려오는 것을 알면서도 미리 대처하지 못할 경우 큰 피해를 경험했듯이 내년에 우리 양계인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현실을 걱정해 본다. **양계**